

브라보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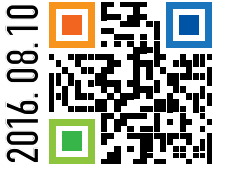
BRAVO ANSAN

NO. 424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③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8월 10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안산시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리우 승리의 함성!

리우올림픽 출전
안산시청 소속 선수



안산, 낡은 틀을 깨고 새롭게 변화한다!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동별 주민 설문조사 통해 지역정서 반영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동 명칭, 행정구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

사1·2·3동과 본오1·2·3동과 같이 숫자로 표기되던 동 이름이 지역정서가 반영된 개성있는 이름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구역도 동일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몇 년 전 택지개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길 지구는 행정구역은 원곡본동에 속해 있지만 실제 생활권은 녹지대, 차도 등에 의해 원곡본동과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기 위해 거리가 먼 원곡본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만 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해 왔고 이로 인한 새로운 주민센터 건립까지 요구하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안산에는 지은 지 오래된 주택들의 재건축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지동 화랑역 세권과 한양대학교 후문 부근 89·90블록의 개발까지 완료되면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25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동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직능단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동 명칭 변경 대상 동은 14개 동으로 압축됐다.

집집마다 통장이 직접 방문조사

오는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지역주민의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가 원곡본동을 포함하여 14동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통장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게 되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기존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동 명칭 바뀌어도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그대로

동 명칭 변경은 설문조사 결과 동(洞)세대별 1/3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 확정 이후에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개정과 공표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호적부 등 약 70여 종에 이르는 각종 공부(公簿)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된다. 사2동에 거주하는 이미자(50세)씨는 “우리 동네 이름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좋은 느낌의 새명칭으로 바뀌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감골동과 사이동 둘 다 의미있고 좋은 이름이어서 선택하는데 고민 좀 할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과 정서에 걸맞는 좋은 이름이 정해지길 기대해 본다.

☎ 문의 : 자치행정과(031-481-3446) /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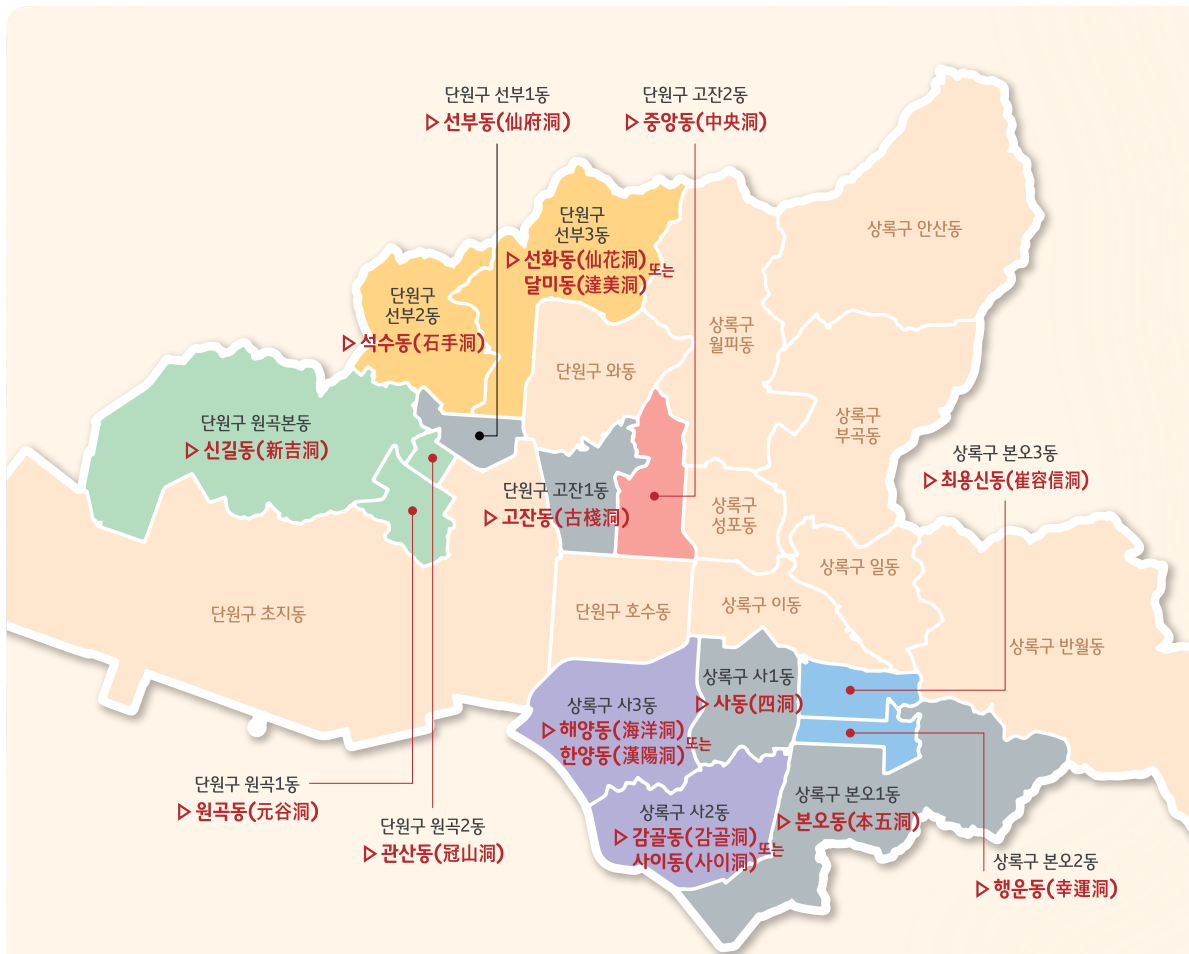


〈 동 이름이 바뀌게 될 14개 동의 전 후 이름 〉

변경 전	변경 후
사 2 동	감골동(감골洞) 또는 사이동(사이洞)
사 3 동	해양동(海洋洞) 또는 한양동(漢陽洞)
본오 2동	행운동(幸運洞)
본오 3동	최용신동(崔容信洞)
고잔 2동	중앙동(中央洞)
원곡본동	신길동(新吉洞)
원곡 1동	원곡동(元谷洞)
원곡 2동	관산동(冠山洞)
선부 2동	석수동(石手洞)
선부 3동	선화동(仙花洞) 또는 달미동(達美洞)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원화

- 사 1 동 → 四洞 • 본오1동 → 本五洞
- 고잔1동 → 古棧洞 • 선부1동 → 仙府洞



- 새로운 동 명칭 의미 —
- 감골동** 감나무가 많은 마을이어서 상징성이 있고 정겨움을 반영
 - 사이동** '사2동'의 숫자를 한글로 표기하여 '사이좋은 마을'이라는 의미
 - 해양동** 해양도시인 시 이미지를 반영
 - 한양동**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지역사회 인재육성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뜻
 - 행운동** 관할구역 경계가 행운의 열쇠모양이어서 주민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뜻
 - 최용신동** 최용신 선생의 유적지 및 기념관이 있으며 선생의 가치와 명성을 활용하기 위함
 - 중앙동** 중앙초·중, 중앙역 등 '중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이 중앙동으로 부르고 있음
 - 신길동**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향후 개발여지가 높으며 주민센터 설치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위함
 - 원곡동**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며 생활권이 같은 원곡본동과 원곡1동을 통합해 안산시의 증가로서 명맥을 유지 발전 위함
 - 관산동** 관산도서관 일원을 원곡2동으로 편입해 안산의 신흥 명품 주거지로 발돋움하기 위함
 - 석수동**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인지도가 높으며 주변 석수초·중학교, 석수골(가칭)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
 - 선화동** 선부동과 화정동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변경
 - 달미동** 선녀들이 목욕했던 석수골 우물물에서 목욕을 하면 미인이 된다는 '달미(達美)'에서 유래하여 공원 도로명 등에 사용중

건건동 도로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 진입로에 보도 설치와 도로배수로 정비 완료

건건동 지역의 주 진입로에 170m 보도가 연장되면서 그동안 버스 및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이용하기 불편했던 보행로가 넓어졌다. 또한 이 지역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 호우 시 상습적으로 도로가 침수돼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과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보도설치 및 도로배수를 정비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문의 : 건설과(031-481-2433)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위해 안산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 지도 점검 실시

안산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26일까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결과 중점관리업소 및 특별관리업체에 대해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 검사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중점관리업소는 위생등급 평가 결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이며, 특별관리업체는 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고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초과표시) 여부 ▲제조가공실(기계·기구)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식품기본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을 폐기할 계획이다.

☎ 문의 : 식품위생과(031-481-2236)

새로운 시작! 안산시 체육회·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안산시 체육회' 공식 출범

지난 27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안산시 체육회와 안산시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안산시 체육회가 출범식을 했다. 출범식에 앞서 안산시체육회는 정용상 상임부회장과 이사회, 대의원 77명을 정식으로 해산시키고 안산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대의원 총 83명으로 대통합하여 안산시체육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생화체육회를 통합해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앙 및 시·도 체육단체 통합 방침에 따른 것이다.

☎ 문의 : 체육진흥과(031-481-2149)

생활속 꿀팁



지방세 환급금 돌려준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다음달 중순까지 돌려준다. 환급금은 대부분 국세의 경정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나 이전 등으로 발생한다. 시는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및 전화로 독려할 계획이며 미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ARS(1588-5128), 전화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 상록구 세무1과(031-481-5323)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추가접수

시는 녹슨 상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총 공사비의 80%~30%를 차등 지원하고, 세대별로는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 원, 공용배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수도시설과(031-481-203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제19회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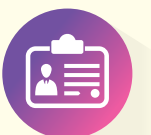
모집기간 2016. 8. 12 ~ 8. 24(13일간)

대상자 안산시 관내 3년이상 가동중인 기업대표 또는 근로자

신청방법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추천서와 증빙서류)

신청서류 안산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참조 ('중소기업대상' 조회)

• 기업지원과(031-481-2841)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133)

대부도에서 1박 2일 어때요?

여름 불볕더위를 피해 휴가도 다녀왔지만 8월의 도시는 아직 뜨겁다. 연인과 함께 동해에 다녀왔다면, 가족과 함께 서해 대부도에서의 1박2일은 어떨까? ‘큰 언덕’이라는 뜻의 대부도(大阜島)는 서해안에서 가장 너른 섬으로 선감도, 불도, 탄도 등 여러 섬들이 연결되어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이다. 대부도는 시화방조제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이지만, 섬만이 지닌 서정과 감상은 오롯이 남아 숨은 보석처럼 반짝인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시화방조제길 위에서 하늘과 맞닿은 대부도 해안선이 시선을 잡아끈다. 물안개를 두른 해안선 너머 대부도에서 가볼만한 곳을 소개한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l@hanmail.net /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대부도 종현어촌체험마을

대부도 종현마을 가는 길은 대부도를 연결하는 시화방조제를 비롯하여 탄도, 불도, 선감도를 연결하는 여러 방조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돌이 검다는 ‘탄도’, 부처가 나왔다는 ‘불도’, 신선이 노닐었다는 ‘선감도’ 등은 지명의 유래에서 보듯 독특한 멋을 간직한 곳이다.

대부해솔길 1코스에 위치해 있는 종현어촌체험마을(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40)은 풍부한 해양생물이 자생하고, 넓은 갯벌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주위에 염전, 항공, 해양, 산악 등 각종 레포츠 시설, 이색 숙박 시설(오토캠핑장) 등을 구비하고 있어 단체와 가족들이 함께 야영을 하기에 적당한 체험마을이다.

종현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인 갯벌조개잡이는 주말이면 200~300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부드러운 갯벌에서 호미로 바지락과 동족을 잡는 조개잡이는 3월에서 11월까지 체험이 가능하다. 조개잡이, 갯벌썰매(4~11월) 후 미꾸라지잡기 체험(6~9월)을 하거나 해안관광열차를 타고 아름다운 산책로와 무인도를 돌아보는 코스도 좋다.

썰물 때를 이용한 바다레프팅(6~9월)은 계곡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체험을 통해 협동심을 키울 수 있어 기업·단체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휴가의 절정인 8월 3일 오전, 안양 호계중·안양중 학생들 40명이 안전교육을 마친 뒤 트랙터를 타고 갯벌로 향하고 있다. 아침부터 두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왔다는 정윤진 씨(36세, 수원시)는 “조개를 잡으면서 아이들이 소라, 게 등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하고 있어요. 갯벌체험이 끝나면 어린이풀장에서 놀다 가려고 해요. 가까운 곳에 대부도가 있어서 참 좋아요.”라고 하면서 즐거워한다.

조왕길 어르신(77세, 의왕시)은 “안양에 사는 딸이 휴가차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손주들도 재미있어하고, 직접 잡은 바지락을 넣어 저녁에 끓여먹을 된장국을 생각하며 열심히 잡고 있다.”며 바구니 가득 쌓인 바지락을 보여준다.

종현마을 체험 후 해솔길을 따라 낙조전망대에서 아름답게 물드는 석양도 놓치지 않기를...



☎ 문의 : 종현어촌체험마을(032-886-6044)



숨겨진 맛을 찾아 떠나는 여행

대부도의 숨은 맛집으로 지난해 안산시가 선정한 대부 로컬푸드 시범음식점 ‘윤숙이네 손칼국수, 해솔낙지, 뚝이네 횃집, 대부맛집 청미, 꿩먹고 만두먹고’와 돈가스 전문점 ‘김&김’, 카페 ‘커피정원’을 소개한다.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기 훨씬 전부터 대부도 인기맛집으로 유명했던 ‘윤숙이네 손칼국수’는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딸이 운영하는 맛집이다. 지금은 칼국수 이외에도 알이 짙 찬 간장게장, 낙지무침도 인기를 얻고 있다.

산낙지를 전문으로 하는 낙지전문점 ‘해솔낙지’. 국물이 시원한 연포탕은 물론 수족관에서 꺼내 바로 손질해 내놓는 낙지덮밥도 식감이 다르다. 제철에는 왕새우, 꽃게, 쭈꾸미 요리도 메뉴에 오른다.

회를 아는 고수들만이 찾는다는 ‘뚝이네 횃집’은 25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손님을 맞고 있다. 배를 타고 직접 잡아온 자연산 활어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꾸준히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 숨은 맛집이다.

바지락 고추장떡배기, 간장게장, 영양굴밥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한 ‘대부맛집 청미’. 대부도가 고향인 사장님은 대부도 음식점들의 외양과 식단이 획일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황토로 식당 인테리어를 하고 자신만의 특화된 메뉴를 신중하게 찾고 개발하며 대부도의 맛을 지키고 있다.

20년 넘게 꿩을 사육해 도·소매를 하는 아버지 곁에서 꿩요리를 하는 ‘꿩먹고 만두먹고’는 전국에도 흔치 않은 꿩요리집이다. 엄나무, 뽕나무뿌리 등 7가지 약재로 우려낸 한방육수에 꿩을 넣고 끓인 담백한 꿩백숙, 닭볶음탕처럼 매콤한 꿩탕, 농장에서 바로 잡아 내오는 신선한 육회가 별미다.

대부로컬푸드의 향토음식이 내키지 않는다면 ‘김&김’의 푸짐한 돈가스와 냉면은 어떨까? 우스타 소스, 월계수 잎, 표고버섯을 넣고 걸쭉해지도록 오래 끓여낸 소스를 얹은 돈가스는 맛도 좋지만 장정 혼자 먹기에도 벅찬 양에 손님들은 혀를 내두른다. 매일 장 봐온 신선한 식재료를 손님에 맞는 1인 기업으로 식재료가 소진되면 영업 시간 전에 문을 닫는다.

식후 커피와 함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커피정원’이 정답이다. 정성스레 가꾼 나무와 아기자기한 소품이 놓인 정원이 있는 커피정원은 제2의 직업을 찾던 이창재 사장님(56세)의 가치관이 스며든 공간이다. 노후를 설계하면서 시작한 커피숍 실내는 직접 제작한 원목 테이블, ‘가족’을 주제로 한 도자기 인형 등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 공간이 마을 사람들과 다양한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는 카페지기의 바람은 커피 맛과 향을 배가시킨다.



- ☎ 문의 : 윤숙이네 손칼국수(대부북동 1851-1, 032-882-1947)
- 해솔낙지(대부북동 639-85, 032-883-1014)
- 뚝이네 횃집(대부동동 577, 032-886-2666)
- 대부맛집 청미(대부북동 1826-156, 032-887-1108)
- 꿩먹고 만두먹고(대부북동 730-3, 032-881-1192)
- 김&김(대부남동 1209-12, 032-888-6589)
- 커피정원(대부남동 3-68, 032-327-6330)



대부도 펜션에서 오감만족을!

수도권 최고의 바닷길 대부해솔길을 걸으며 갯벌을 체험하거나 탄도항에서 누에섬까지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숙소에서 바비큐 파티와 그랑꼬또 와인을 기울이며 추억을 만들어보자. 대부도에는 모양도 가지각색인 예쁜 펜션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국내 최대의 펜션단지 ‘대부도펜션타운’이 있다. 호텔 부럽지 않은 펜션에서 오감만족 펜션까지, 원룸부터 3층 독채까지 다 있다. 노래방, 당구장, 수영장 등 놀이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변 레포츠 연계 할인도 해준다.

유리섬박물관 근처에는 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펜션 ‘그곳에가면’이 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 끝자락에 있는 야외수영장은 규모가 크고 한여름 띄약벌을 막아 주는 지붕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서 수영을 즐기기 좋다. 객실 이용객은 정원에도 그늘막이나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해 이용이 편리하다. 히노끼나무로 마감 처리한 월 폴스파가 구비되어 있어 객실 안에서 스파를 하면서 창밖의 바다와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하기 좋다.

대부도 종이미술관 내 한옥숙박체험시설인 일연재(자연과 하나되는 집)와 교월당(달빛이 아름다운 집)에서는 한옥의 우수성과 품위, 전통을 느끼며 한옥스테이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글램핑을 할 수 있는 캠핑성, 대부도펜션파크, 대부도펜션빌리지, 대부도펜션시티에서도 숙박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이튿날 아침에는 대부도 해변을 감상하며 승마를 즐기거나 동춘서커스, 유리섬박물관, 정문규미술관의 전시와 음악회도 빼놓지 말자.



- ☎ 문의 : 그곳에가면(032-886-8661)
- 종이미술관(대부남동 460-134, 032-887-0606)
- 캠핑성(www.campingcastle.com), 대부도펜션타운(www.ddtown.co.kr)
- 대부도펜션빌리지(www.daebudovil.com), 대부도펜션시티(www.pensioncity.kr)
- 대부도펜션파크(www.daeboodopark.com)



시원한 여름 축제가 찾아온다!

여름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2016 여름미오페스티벌



스컬&하하



서영은

안산문화재단은 오는 8월 13일(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서 2016여름미오페스티벌을 연다. 2004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로 매해 여름 풍성한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던 여름미오페스티벌. 올해는 '하루 동안 알차게 즐기는 썸머 피크닉'을 주제로 스컬&하하, 서영은, 킹스틴 루디스카, 코바나 등 핫 뮤지션들의 콘서트와 보물지도 탐험대, 물놀이터, 시네토크콘서트 '귀향' 등 이색 프로그램들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스컬 & 하하와 함께하는 한 여름의 레게파티

올해 메인 무대에는 스컬&하하가 출연한다. 스컬&하하는 최근 '무한도전'을 통해 레게 본고장 자메이카에서 한국 레게의 위상을 펼친 바 있으며, 지난 3월 아시아 최초로 레게 음악의 거장 Stephen Marley와 함께 작업한 'Love Inside'를 발표하여, 국내와 아시아는 물론 자메이카 현지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한국 대표 레게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최고의 감성 보컬 서영은과 대한민국 대표 스카밴드 킹스틴 루디스카, 남미의 라틴재즈 연주그룹 코바나가 이국적이고 독특한 무대를 연출한다. 서영은은 발라드, 재즈, 보사노바 등 다양한 장르를 그녀만의 뛰어난 보컬감각으로 소화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킹스틴 루디스카는 자메이카의 발랄한 리듬 속에 한국적 감성이 녹아든 독특한 '킹스틴 루디스카'표 음악을 선보이며,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스컬&하하 팀과의 특별한 합동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국내 유일의 라틴재즈 전문 연주그룹 '코바나'는 한국적인 정서로 재해석한 라틴음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댄서들의 화려한 무대로 시각적 유쾌함까지 더한다.

하루를 꽉 채운 풍성한 프로그램

올해 여름미오페스티벌은 '하루 동안 즐기는 피크닉'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리엔티어링 - 보물지도 탐험대'가 마련된다.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산 속의 여러 지점을 통과하는 스포츠 경기인 '오리엔티어링'을 가족단위의 야외 놀이로 재구성하여 안산문화재단과 화정천, 와~스타디움 등 주변 환경을 탐험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초·중·고등학생 이상 아동이 포함된 가족단위로 팀(최대 4명)을 구성해 예약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는 야외 물놀이터 '여름미오 수영장'과 '미니 비치'를 운영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는 '여름미오 수영장'을, 중앙광장의 '미니비치'에서는 미니수영장과 썬베드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가위바위보 놀이를 통해 팔빙수를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 '달콤살벌 팔빙수' 이벤트 부스도 준비한다.

달맞이극장에서는 영화 <귀향> 시네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영화상영 후 조경래 감독이 관객과 함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진다. 또한 실력파 팝페라가수 김선희의 라이브 영화 음악이 함께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시대 가장 특별한 영화 <귀향>에 대해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네토크 콘서트 '귀향'은 15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ansanart.com) 또는 전화(031-481-4000)로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야외 음악 공연이 끝난 후, 9시 30분부터 야외중앙광장에서는 여름미오 영화관이 문을 연다. 경기도 다양성 영화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우리들>이 초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된다. 영화 <우리들>은 외톨이였던 '선'과 단짝친구 '지아'의 갈등과 화해 속에 이어지는 관계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섬세하게 그려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여름미오 페스티벌의 꽉 찬 하루가 마무리된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031-481-4000)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안산시립국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여름밤에



일시
 2016. 08. 19(금),
 19:30 ~ 21:10

장소
 문화광장 전망대광장

문의 : 문화예술과(031-481-2064)

프로그램

*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

시간		소요시간(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9:30	19:37	7	여는마당 캐리비안의 해적 OST	
19:37	19:52	15	국악단원이 함께하는 협주곡 가야금협주곡 '아랑의 꿈' / 태평소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	
19:52	20:12	20	뽕파전	김학용, 이광복, 박은경
20:12	20:22	10	색소폰 협연 You raise me up / Fly me to the moon	안드레 황
20:22	20:37	15	무용단과 함께 미알과 친구들	BJ무용단
20:37	20:47	10	영화음악OST	
20:47	21:02	15	뮤지컬 음악과 함께	
20:02	21:10	8	앵콜 여행을 떠나요 / 해변으로 가요	

한국·프랑스 작가의 생생한 협업 과정, 살아있는 작품으로 탄생

경기도미술관 ‘G-Live: Fabien&Taeyoung’展, 등을 맞댄 삶과 죽음



장태영, 瑞祥(서상)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마주 서 있는 두 작품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오른쪽 벽면에는 붉은 바탕에 수성 페인트로 괴기한 캐릭터들을 뚜렷하게 그려 넣은 프랑스 작가 파비앵 베르쉐르의 작품. 왼쪽 벽면에는 흰 바탕에 먹으로 섬세한 선들을 반복적으로 그려 넣은 한국 작가 장태영의 작품. 죽음과 삶을 표현했다는 이 거대한 두 작품 사이에 서 있노라면,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삶과 죽음이 서로 긴밀하게 섞여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경기도미술관 ‘G-Live: Fabien&Taeyoung’ 전시는 살아있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대비되는 두 작가의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노출해 완성됐다. 전시에 참여한 두 작가 장태영과 파비앵은 높이 7m에 가로 18m에 이르는 전시장의 거대한 벽면에 지난달까지 그림을 그렸고, 관객은 이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완성된 작품을 미술관에 전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또 다른 형태의 현대미술영역을 소개한 이번 전시는 관람객과 작가가 한 공간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

도안 없이 매순간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화폭에 그대로 옮기는 파비앵의 그림에는 유독 해골이 많이 나온다. 저신장 장애로 어린 시절부터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파비앵의 경험이 ‘죽음’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이끌었고, 병원에서 쫓던 악몽들은 그림 속 캐릭터가 됐다. 작가의 어릴 적 경험에서 출발한 이미지들은 현재 자신이 접한 다양한 이야기들의 이미지로 확대됐다. 붉은 색 바탕에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괴기한 캐릭터들을 벽면 가득 채워 넣은 그의 그림은 한번만 봐도 잊기 힘들 정도로 강렬하다.

반면 맞은편에 있는 장태영 작가의 작품은 차분하고 정적이다. 전통 붓으로 ‘화점’을 무수히 그려 넣어 물

흐르듯 만들어지는 나선의 결이 연속되는 패턴을 만든다. ‘서상(瑞祥)’이란 주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삶에 대한 희망, 상서로운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한다. 무수하게 반복되는 패턴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화면을 지우고 있다’고 표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풍경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

쾌활한 파비앵의 작품과 진중한 장태영의 작품은 정반대편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무의식을 작품에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 ‘자동페인팅’ 기법으로 작업하는 파비앵은 마치 일기를 쓰듯 연속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장태영 작가는 무의식과 의식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작업을 해 나간다. 결국 작가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삶과 죽음이 동시에 혼재하는 순간들일지도 모른다. 양쪽 벽면에서 등을 맞대고 삶과 죽음을 그리던 두 작가는 맞닿은 면에서 합작을 선보이게 된다. 두 사람의 에너지가 만나 어떤 작품으로 탄생될지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시 작품의 도안과 제작 과정 중 나타나는 패턴을 응용한 회화와 드로잉 체험 및 장태영 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formation

전시기간

2016년 9월 18일(일)까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gmoma.ggcf.kr>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전시장 전경

대부도는 ‘노랑부리백로’의 최대 먹이서식지



국제적인
보호조류
노랑부리백로가
안산의 시조가
된 이유



국제적인 보호 조류로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마리 내외 밖에 없다는 노랑부리백로를 천 마리 넘게 볼 수 있는 곳이 안산에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대부도 갯벌은 천연기념물 361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중요한 먹이 서식처다. 갯벌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도에 새끼를 데리고 나온 노랑부리백로 1,200마리가 올 때도 있다. 특히 노랑부리백로는 2013년에 시의 새로 지정됐다. 노랑부리백로의 하얀 자태와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습성은 왜 노랑부리백로가 안산의 시조가 됐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안산의 특이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노랑부리백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자.

둥지는 무인도, 식사는 대부도 갯벌에서

노랑부리백로는 사람의 간섭이 없는 무인도 섬에 둥지를 튼다. 4월부터 5월 초순까지는 짝짓기를 하고, 5월 중순이 넘으면 알을 낳기 시작해 7월 중순쯤 되면 새끼가 태어난다.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미가 대부도에서 물고기를 잡아 무인도 섬까지 17km거리를 날아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준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을 암수가 교대로 갯벌과 무인도 섬을 왕복하며 먹이를 배달한다. 백로의 목 밑에는 먹이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작은 물고기를 보관했다가 둥지에 토해놓고 새끼들을 먹인다. 대부도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노랑부리백로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길게 물이 빠져서 망둥어 새끼나 새우 같은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노랑부리백로 새끼가 자라 성장할 때쯤이면 어느덧 겨울이 되고, 노랑부리백로들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겨울에 노랑부리백로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은 필리핀의 세부섬이다. 노랑부리백로는 세부의 맹그로브 나무 위에서 한철을 보낸 후, 다음해 4월이 되면 다시 우리나라를 찾는다.

물고기도 씻어먹는 깔끔한 귀족새

노랑부리백로가 다른 백로들과 달리 특이한 점은 유독 깨끗하다는 점이다. 둥지를 트는 위치도 나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일반 백로들이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어 배설물 때문에 나무를 죽게 하는 반면, 노랑부리백로는 나무 아래 가지덤불 속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나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 갯벌을 돌아다니면 흙이 묻는 것이 당연할 텐데 항상 몸이 청결하다. 보통 일반 새들은 먹이를 그냥 잡아먹는데 노랑부리백로는 갯지렁이 하나를 잡아도 물에 씻어 먹는다. 다른 백로들은 이런 습성이 없다고 한다. ‘귀족새’라는 별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가장 화려한 노랑부리백로를 보고 싶다면

노랑부리백로의 색깔이 가장 화려할 때는 4월부터 8월초까지다. 4월부터 5월까지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장식깃이나 부리, 발색깔이 굉장히 예뻐진다고 한다. 노란색 부리와 검정색 발 색깔이 한층 더 선명해진다. 그런데 8월 중순이 지나면 장식깃털도 빠지고, 부리 색깔도 검정빛으로, 발 색깔도 그린빛으로 바뀐다. 장식깃털이 빠지거나 짧아지는 이유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하니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랑부리백로를 닮은 생태도시

노랑부리백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최종인 씨는 노랑부리백로의 깨끗하고 우아한 습성이 안산의 생태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동안 시화호가 오염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시화호를 바다에 다시 돌려준 이후부터는 철새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먹이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도 한 갯벌에서는 노랑부리백로 250마리가 한꺼번에 군집해 있기도 했어요. 안산시가 노랑부리백로 월동지인 필리핀 세부시와 협력해 노랑부리백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만드는 등 생태도시로서 선구적인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2016년 9월 ~ 11월(3개월, 12주 과정)
- **접수기간 [기존회원]** 2016. 8. 6(토) ~ 2016. 8. 14(일)
[신규회원] 2016. 8. 16(화) ~ 마감시까지
[온라인접수] 2016. 8. 16(화) ~ 2016. 8. 19(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안산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 **문의전화** 031-475-1981



유아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과학 프로그램
유아EQ발달 창의미술, 창의가베 유아딜레마 유아창의블럭 바우미 잉글리시스토리텔링 뮤직스토리텔링 클래식 유아발레 유아축구교실 토요유아축구교실 유아성장놀이	화요성인드림 목요성인드림 신바람노래교실 화요성인기타교실 목요성인기타교실 포크아트, 성인수채화 캘리그래피 성인서예교실 성인난타교실 성인피아노 배드민턴, 치유요가 다이어트요가 웰빙댄스	바이올린, 기타교실, 드럼교실 난타교실, 우쿨렐레, 소묘와 수채화 만화, 나무건축공예, 도예교실 서예교실, 주산암산, 즐거운 중국어 재미있는 한국사, 논술, 독서디베이트 딜레마, 창의블럭 바우미, 제과제빵 요리탐험, 뮤직게임플레이어 피아노, 농구교실, 토요농구교실 일요농구교실, 축구교실 토요축구교실, 청소년축구클럽 클래식 어린이발레, 토요탁구, 바둑 브레인바둑, 체스&리버시, 인라인 배드민턴	코마과학자 실험탐구교실 케이넥스 레고창의로봇EV3 레고창의로봇NXT 레고과학공학기술 3D창작교실 드론체험교실 스마트소프트웨어교실 레고스토리텔링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8-10월 초청강연회 영어, 독서가 답이다!

**영어독서가
기적을 만든다**
8. 25. (목) 오전 10시

최영원
위즈덤트리
영어교육연구소장

**플랜이 있는 아이는
영어교육이 다르다**
9. 22.(목), 10시

**플랜이
있는 아이는
영어교육이 다르다**

**초등 영어,
독서가 답이다!**

이상화
맘스영어독서클럽 운영

**영어독서가
기적을 만든다**

**영어독서가
기적을 만든다**

**플랜이
있는 아이는
영어교육이 다르다**

유수경
영어컨설턴트, 유수경닷컴대표

**초등영어,
독서가 답이다!**
10. 20.(목)
오전 10시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홈페이지 (lib.iansan.net)
인터넷 선착순 접수

책 읽는 안산 / 8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여름 = 자연 + 성장통

아동



여름날 숲속에서

저자 권영세 / 출판사 학이사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동시 모음집으로 풀숲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시어가 떠올라 예쁜 시구들이 탄생되었으며 창의성과 아름다운 마음을 길러주는 동시집으로 초등 권장도서로 추천되는 도서이다.

청소년



나쓰미의 반딧불이

저자 모리사와 아키오 / 출판사 이덴슬리벨

싱고와 나쓰미가 '다케야'에서 보내는 여름은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 지내던 여름방학을 떠올리게 한다. 평온한 전원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웠던 여름의 추억, 보석 같은 하루하루를 함께 그려 보며 아련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성인



배반의 여름

저자 박안서 / 출판사 문학동네

이 책에는 「조그만 체험기」, 「겨울 나들이」, 「흑과부」 등 놀라운 모성의 힘을 그린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생명력과 모성성을 발휘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내 문학의 뿌리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작가는 특유의 수다스러움으로 모성의 힘을 풀어내며, 힘센 이들만이 권력을 쥐고 판을 치는 현대 사회에서 뒤로 처진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준다.

광복 71주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다

8월 15일 저녁 6시, '안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 기념문화제 열려



광복 71주년을 맞아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 지난 3월 1일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모금운동을 시작한 이후 185개 단체와 3,991명의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오는 8월 15일 안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게 됐다. 시민모금액은 6천3백만 원이 모였고, 안산시가 3천만 원을 후원했다.

현재 전국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곳만 40곳에 달하며, 올 8월에만 10곳에서 소녀상이 새로 제막한다. 해외에 소녀상(기림비 포함)이 세워진 도시만 해도 12곳이 넘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세워진 이유는 뭘까.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졌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내용이 발표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명시와 직접적인 사죄표명도 없는 합의안에 한국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구절까지 인정하며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타결을 했기 때문이다. 그 뒤 시민들이 직접 모금해 만든 '평화의 소녀상'설치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다.

치마저고리에 짧은 단발머리를 한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던 13세~16세 때를 재현한 모습이다. 또, 소녀상 옆에 놓은 빈 의자 하나는 할머니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 '위안부'란 명칭으로 전시 성노예로 끌려갔던 여성은 모두 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70%가 한국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된 할머니는 238명뿐이었고, 이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생존자는 4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였던 옛된 소녀들이 어느덧 죽음을 목전에 둔 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책임 있는 사죄 한마디 없이 역사를 덮어버리려고 한다. 아흔이 훌쩍 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아무리 굶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며 참여하는 수요집회가 현재까지 1,200회가 넘게 지속되는 이유다.

'안산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 강점기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꽃다운 소녀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

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산 시민의 뜻을 모아 제막한다. 십시일반 성금을 모은 개인 후원자와 단체후원자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도 함께 제작됐다. 8월 15일 오후 4시부터는 전시·체험부스가 운영되고, 6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 퍼포먼스로 안산지역 청소년들이 준비한 '나는 나비' 플래시몹이 펼쳐진다. 이 땅의 평화를 소망하는 많은 안산 시민들의 뜻 깊은 참여를 기다린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안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 퍼포먼스 "나는 나비"

공연일시 | 8월 15일(월) 오후 6시
 공연형식 | YB (나는 나비) 플래시몹
 모집대상 | 연습에 모두 참여 가능한 안산지역 청소년 (12세 - 19세)
 참가신청 | 8월 10일(수)까지, 참가신청 인터넷 페이지에서
 문의사항 | 담당자 김혜란 (031-411-6150)
 연습날짜 | 8월 13일(토) 2시, 15일(월) 오후 4시

광복71주년 기념 경축식 행사

- **일 시** 2016. 8. 15(월), 10:00 ~ 13:00
-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달맞이 극장)
- **참 석** 500여 명
 - 광복회 안산지회 회원, 보훈단체 인사
 -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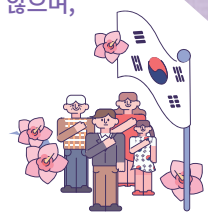
- 각 가정에서는 8. 15(월), 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하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 가능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미니스톱은 지역별·일부 매장에서 판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를
다양하게
달아주세요

“세월호 참사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안산 시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세월호 참사 안산시민 구술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최근 동네 이웃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우연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한 달 동안 어떤 상태로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이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두 달간 멍한 상태로 지내기도 했고, 다른 이는 청소년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다고도 했다.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를 안산 시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안산시민들의 이야기를 구술기록 형태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 다양한 직업과 나이를 가진 안산 시민 50명의 이야기를 구술 기록 형태로 남기는 이번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를 함

께 겪었던 안산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을 사회적 기억으로 남겨,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7월부터 시작된 구술인터뷰는 현재까지 약 10여 명의 안산시민들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들을 이야기 했다. 시간이 2년 넘게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꺼내놓기 쉽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당시를 기억하며 목이 메어 한동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울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눈시울이 빨갛게 된 채로 어렵게 말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고통’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성안중학교에서 지역사회전문가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이용숙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팽목항과 단원고, 장례식장을 돌며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이 씨는 팽목항에서 지나치는 유가족들 얼굴도 차마 쳐다보기 힘들어 계속 쓰레기만 주웠다고 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 올라와 택시를 탔는데, 팽목항 다녀왔단니까 기사분이 택시비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모두 한마음이었던 거 같아요.”

인터뷰를 지켜보며 공통적으로 보게 된 것은 안산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 이후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컴퓨터 수리 가게를 개업한 사장님은 창문과 명함에 노란리본을 새겨 넣었고, 10대와 20대들은 노란리본과 노란 팔찌를 의식적으로 계속 달고 다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하기도 했다. 어른들은 일정한 죄책감을 느꼈고,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였던 세대는 온몸으로 앓았던 세월호 참사를 가슴에 깊게 새기고 있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안산 시민들의 마음은 서로 연결돼 있었다.

문의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031-481-3250)
송보림 명예기자_ treehelper@naver.com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출전 '주요 경기' 일정표 II

★ 안산시청 소속

날 짜	종 목	출전선수
8월 11일	사격(남자 50m권총)	진종오
8월 12일	양궁(여자 개인전)	기보배, 최미선, 장혜진
8월 13일	양궁(남자 개인전)	김우진, 구본찬, ★이승운
8월 14일	펜싱(여자 사브르 단체전)	김지연, ★윤지수, ★서지연
8월 18일	태권도(남, 58kg급)	김태훈
	태권도(여, 48kg급)	김소희
8월 19일	배드민턴(남자복식)	이용대, 유연성
8월 20일	리듬체조	손연재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 지역 기관 방문 통해 협력 방안 모색

안산교육지원청 · 단원구노인지회 · 단원경찰서 잇달아 방문해 의견 교환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최근 지역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며 기관 간 상호 협력과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의장은 지난달 29일 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이재홍 단원경찰서장과 상견례를 갖고 현안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민근 의장은 의회가 원만하게 원 구성을 못한 상황이지만 조속히 사태를 수습해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며 지역 치안 및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회가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홍 서장도 단원구 치안 현황에 대해 소개한 뒤, 안산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민근 의장은 앞서 지난 7월 27일 안산교육지원청을 찾아 노선덕 교육장과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며 28일에도 단원구 노인지회를 예방해 지회 관계자들과 노인 복지 확충 및 관련 사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근 의장은 “안산시의회와 지역 기관들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의정 활동에 있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면서 “다른 기관들도 곧 일정을 잡아 찾아뵙고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1.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사진 오른쪽)이 단원경찰서 이재홍 서장과 29일 단원경찰서 서장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과 단원경찰서 이재홍 서장이 29일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으로 이민근 의장, 이재홍 서장

보건소 소식

엄마가 느끼고 만들어 보세요~ 태교 미술교실 참가자 모집

- **대 상** 16~32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 20명
- **장 소** 단원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 **수 강 료** 무료
- **접수방법** 방문 및 전화(선착순) 8월 16일(화)부터 마감시까지
- **문 의**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031-481-2552, 2573)



Smart 베이비 출산교실(주간·야간)

- **대 상** 16~32주 보건소 등록임신부, 주간 30명 / 야간 20명
- **장 소** 단원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 **수 강 료** 무료
-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선착순 접수, 8월 16~19일까지)
- **교육일정** 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3~5시, 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 **문 의**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031-481-2552, 2573)



안산시, 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 **대 상** 기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6만원)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만 12개월까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산모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시 월 8만 6천 원)
- **접수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단원보건소(031-481-2563), 상록보건소(031-481-5975)



1951년생(만 65세) 어르신 무료 폐렴 예방접종 안내

- **일 시** 2016년 7월부터 연중(2016년 7월~8월 집중 접종기간)
- **장 소**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대 상** 1951년 어르신(※ 만 65세 이후 노인폐렴(폐렴구균23가 다당질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
- **준 비 물** 신분증
- **문 의** 단원보건소(031-481-3513~5), 상록수보건소(031-481-5971~3)



Fun in Square

A Midsummer Night's Dream
한여름밤의 꿈은
누구의 꿈도 아닌 바로 나만의 꿈.
안산문화광장으로 오세요.
한여름 밤,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꿈 속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Fun in Island

풍도. 작지만 동해의 독도,
서해의 풍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연과 역사적 가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섬.
풍도가 품은 우리 근대사와 아름다운 풍광은 섬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econojin@naver.com



안산시 도시정책!

인구유입 확대가 아닌 인구유출 최소화 전략으로 가야한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인구유입을 전제로 한 도시확장과 그에 따른 개발중심이었다. 이 시기는 향후에 두 번 다시 경험하기 힘든 고성장시대로, 공급위주의 시대였다. 즉, 아파트를 건설하면 수요는 항상 넘쳐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 및 주요 정책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의 방향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지역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맞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공공부분에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예전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1억 명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근지역의 인구를 해당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적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독으로 작용하는 부메랑 효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해외에서는 지역 내 인구감소에 따른 과잉시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것인가의 도시축소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안산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2030년이면 안산시도 인구정점을 지나 하향 내지는 현상유지 정도의 도시규모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주어진 값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시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라고 생각된다. 과거 공급위주의 시대는 지났다.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지으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지역 내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인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즉,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지역주민이 살맛나는 도시가 되면 도시경쟁력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유입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황중호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선부동 블루베리농장 체험이 우리 가족에게 준 행복

이기현(단원구 초치2로 42)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밖에서 돌아온 아내와 아이가 싱글벙글했다. 그리고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자면서 모녀가 맞장구를 쳤다. 아이는 즐거웠던 일을 기록해야겠다며 꼼꼼하게 일기를 썼다.

지난번 7월 중순께 안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해서 다녀온 선부동 블루베리농장 농촌체험 뒤의 이야기다.

아내와 아이들 체험객은 블루베리를 따는 체험 현장에서 직접 잼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마트에서 파는 잼만 먹다가 직접 블루베리를 만들어 보니 맛도 좋고 엄청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아이들에게 교육이란 이런 거구나 싶은 체험이었다며 아내는 대만족의 웃음을 지어보였다.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 했던가. 블루베리농장 체험의 감동이 식을세라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은 농촌 봉사활동 겸, 그리고 현장체험 겸 고향인 상록구 양상동의 당숙모 댁으로 갔다.

필자의 부모님이 생전에 농사짓던 마을에 당숙모님이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사는 곳이다.

지척이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해하던 터였다.

맨처음 우리는 얼마 전 캐낸 감자 고르는 일을 도와드리고, 잠시후에는 닭장에서 계란을 꺼내 담는 일을 했다.

토종닭을 산에 키우고 계셨는데 당숙모와 닭 사료도 주고 물도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농촌체험의 하이라이트, 옥수수 따기를 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트린 옥수수를 잡고 아래로 찢혀 뚜둑, 두두둑 따내는 재미에 두 녀석이 신나했다. 한여름 날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아이들은 밭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흥미진진한 옥수수 따기에 열중하다 보니 벌써 3망태나 수확을 했다.

일을 하다보니 점심때가 되었다. 따낸 옥수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당숙모께서 찹쌀과 황기를 듬뿍 넣고 닭백숙을 해주셨다. 정성 가득한 웰빙 닭백숙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안마당 솔단지의 옥수수가 다 익었다.

아이들이 득달같이 가져와 하나씩 붙잡고 하모니카를 분다.

“우~와, 찹쌀 옥수수야 아빠. 완전 맛있어, 완전!”

아이들이 옥수수 맛을 보면서 탄성을 내지른다. 정말 그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처음이었다.

아내는 당숙모를 도와 설거지를 함께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 들고간 수박을 쪄개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나절 서둘러 집을 나오면서 또 놀러오겠다고 하자 당숙모는 “그렇게들 말만하고 안 와!” 하며 웃으셨다. 순간 무척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하지만 내년엔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드리며 당숙모를 꼬~옥 한번 안아 드리고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들 모두 농촌체험이 어땠냐고 묻길래 딱 한마디 했다.

“아무때고 애들 데리고 당장 찾아가봐. 너무 좋아”라고.

30 **꿈꾸는 도시 안산** 안산시체육회

희망으로 일궈낸 30년, 1,000년을 희망으로!

2016 안산 희망 마라톤대회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기/념/품
 • 10km 이상
 • 5km 이상 참가자
 • 5km 기념품 1세트

경품
 웨보레 스포츠

2016. 9. 25. (일) 오전 8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행사내용
 ◆공연: 인기가수 다수 출연
 ◆부대행사: 페이스리딩, 축적시진, 북여군, 격대공연 등

신청접수
 1566-1936
 031)482-2821 (내선3번)
 www.ansanrun.com
 ※참가접수: 2016년 8월 19일까지 마감

주최: 안산시 경기일보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안산 즐거움을 노래하다

안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An San

2016. 8. 20(토) 오후 3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무료공연

안산시의 오늘이 궁금하다면
드림TV를 클릭하세요!

바로가는 웹주소
www.ansandream.tv

포털사이트 검색
안산드림TV

연계 채널
 ANSAN DREAM TV 안산시 소셜방송
 NAVER tvcast
 DdM tv팟
 YouTube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 토마토의 효능**

소화 촉진 효과
 토마토의 신맛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 등의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 안정 효과
 칼륨이 체내 염분을 배출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토마토 고르는 방법**

- 둥글고 묵직한 토마토가 좋습니다.
- 전체적으로 색이 균일하고 꼭지 주변에 녹색이 남아있는 토마토가 좋습니다.

*** 맛있는 토마토 더 유용하게 즐기는 방법**

-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 보관하고,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음으로 속이 좋지 않을 때 토마토를 생식하면 메스꺼리는 속을 진정시켜줍니다.

과음하는 직장인의 필수 먹거리 토마토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